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종결어미*

장윤희**

1. 서론

본고는 15세기 전 단계, 곧 전기 중세국어를 반영하는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감탄법 종결어미를 확인·분석하고 그 통사·의미적 특성을 규명함에 목적이 있다. 이는 전·후기 중세국어 전체의 종결어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의 한 과정이며,[1] 나아가서는 국어 종결어미의 문법사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감탄법 종결어미를 확인·분석하고 고대국어와 15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감탄법 종결어미와의 통시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제18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1998년 2월 11일. 청주 서원대)에서 '중세국어의 감탄법 종결어미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내용 가운데 후기 중세국어 부분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손질한 것이다. 발표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토론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서울대학교

1)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필자는 졸고(1997)에서 석독구결 자료에서 나타나는 명령법 어미에 대하여 고찰한 바 있으며, 졸고(1998)에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느 정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

전기 중세국어를 반영하는 구결 자료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전기 중세국어를 반영하는 석독구결 자료와 늦은 시기의 전기 중세국어를 반영하는 음독구결 자료가 있다. 이러한 전기 중세국어 자료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우선 석독구결 자료만을 다룬다.[2] 또한 석독구결 자료에서 확인되는 감탄법 종결어미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전기 중세국어에서 '감탄'은 이들 종결어미 외에, 후기 중세국어의 '-것/엇-'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어미 구조체 '-ㅇㅅㅊ(앗)-'에 의하여 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선어말 요소로서 이들은 그 문장을 '감탄문'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감탄법 종결어미를 다루는 본고에서 이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어사 자료로서 구결 자료를 다루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를 밝힐 필요가 있을 듯하다. 구결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구결 자료의 독특한 사실을 강조하여 그것을 '구결문법'과 같은 독특한 체계로 설명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국어사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첫째 태도는 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사실 가운데 15세기 이후의 국어 사실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점, 그리고 15세기 국어의 질서만으로 구결 자료를 해석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구결 자료에 반영된 국

2) 전·후기 중세국어의 감탄법 종결어미 체계를 수립하고 그 통시적 변화를 밝히기 위해서는 음독구결 자료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음독구결의 감탄법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후일의 과제로 남게 되는 셈이다.

3) '二ㅐㄱㅐㅇㅅㅊㅣ/인이앗다 (구인 상:15,5)', '說ㄴㅁㄱㅐㅇㅅㅊㅣ/시곤이앗다 (금광 13:17)', '求ㄴㅊㅇㅅㅊㅣ/호리앗다 (화소 35:12,3)' 등의 '-ㅇㅅㅊ-'이 그 예이다. 이처럼 석독구결 자료에서 감탄법을 표시하는 선어말 요소로 '-ㅇㅅㅊ(앗)-'만이 나타나지만 음독구결 자료에서는 '-ㅈㅊ(것)-', '-ㄱㅊ(잇)-'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승희(1996)에서는 이들을 후기 중세국어의 '-것/엇-'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법 선어말어미와 감동법 선어말어미의 통합체로 파악한 바 있다.

어 사실의 정확한 이해를 막는 선입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일 수 있다.[4] 사실 전기 중세국어를 반영하는 자료인 구결 자료에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15세기 국어의 질서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구결 자료에서 나타나는, 다른 시기의 국어 사실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사실은 독특한 대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어사 자료로서 구결 자료를 다룬다고 했을 때 우리는 둘째 태도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사실 가운데 15세기의 국어 사실과 관련시킬 수 있는 한은 서로 결부시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결 자료도 분명히 국어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을 때 구결 자료에서 발견되는 사실은 국어사적인 연속선 상에서 설명 가능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이 구결 자료에 대하여 무조건 15세기적 질서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구결 연구의 결과가 국어사 전반에 있어서 특이한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은 국어사 연구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형태, 또는 통사·의미적 특성 등을 기준으로 15세기 사실과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연속성을 중시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어사 자료로서 구결 자료를 다룸에 있어서 무리하게 15세기의 국어 사실로 구결 자료를 해석하는 일도 경계해야 할 것이지만 지

4)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석독구결 자료의 명사형 어미(전통적 명칭으로는 '동명사형 어미') '-ᄇᆞ(ㅁ)'과 이 명사형 어미와 계사의 통합체인 'ᄒᆞ(리)'를 들 수 있다. 15세기 국어에서는 '-ㅁ'이 주로 관형사형 어미로 사용되고 매우 예외적으로 명사형 어미로서의 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석독구결 자료에서 '-ᄇᆞ'은 주로 명사형 어미로 사용되고 관형사형 어미로 사용된 경우는 오히려 극히 드물다. 또한 석독구결 자료에서 발견되는 'ᄒᆞ(리)'는 거의 대부분 이 명사형 어미 '-ᄇᆞ'과 계사 어간의 통합체이다[백두현(1997ㄱ), 졸고(1998:27)의 주 2) 참조]. 따라서 석독구결의 '-ᄇᆞ'이나 'ᄒᆞ'에 대하여 15세기의 관형사형 어미 '-ㅁ', 선어말어미 '-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된다.

나치게, 구결 자료의 독특한 용법으로만 돌리는 태도도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감탄문의 확인과 감탄법 종결어미의 분석

우리는 15세기에 독특한 종결어미에 의해 종결되어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문장이 존재했음을 잘 알고 있다. 다음이 바로 그것이다.

(1) ㄱ. 獄卒이 … 讚歎ᄒᆞ야 닐오ᄃᆡ 됴ᄒᆞᆯ쎠 됴ᄒᆞᆯ쎠 오ᄂᆞᆳ 낤 果報ㅣ여 釋迦牟尼佛ㅅ 弟子ㅅ ᄂᆞᄆᆞᆯ 보ᅀᆞ반뎌 ᄒᆞ고 (월석 23:82ㄴ)
ㄴ. 時節을 嗟嘆호니 藥 히미 엷고 나그내 ᄃᆞ외야쇼매 시드러운 病이 이레라 (두초 25:33ㄱ)

(1ㄱ)은 화법구문으로서 '됴ᄒᆞᆯ쎠 … 보ᅀᆞ반뎌'가 상위문의 '니ᄅᆞ-'의 보문으로 내포되어 있는 문장인바,[5] 상위문의 '니ᄅᆞ-'는 부사어 '讚歎ᄒᆞ야'에 의해 수식을 받고 있다. 이 부사어는 '됴ᄒᆞᆯ쎠 … 보ᅀᆞ반뎌'라는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요소로서 화자의 발화 태도는 '찬탄'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1ㄴ)에서는 화자의 태도가 (1ㄱ)에서만큼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嗟嘆호니'를 통해 화자(두보)가 (1ㄴ)을 '탄식'하여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찬탄이나 탄식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와 관련된 것인바,

5) 보다 정확히 말하면 (1)은 원래 '獄卒이 … 讚歎ᄒᆞ야 됴ᄒᆞᆯ쎠 됴ᄒᆞᆯ쎠 오ᄂᆞᆳ 낤 果報ㅣ여 釋迦牟尼佛ㅅ 弟子ㅅ ᄂᆞᄆᆞᆯ 보ᅀᆞ반뎌 니ᄅᆞ고' 정도의 문장에서 상위문의 '니ᄅᆞ-'가 원래의 자리에는 대동사 'ᄒᆞ-'를 남긴 채 앞으로 전치되면서 연결어미 '-오ᄃᆡ'와 통합함으로써 결과된 문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희(1994ㄱ)을 참조하라.

이러한 내용의 서술에 다른 종결어미와 구별되는 독특한 종결어미 '-ㄴ뎌', '-ㄹ쎠', '-에라'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소 분석 작업은 졸고(1998:104~6) 참조].

이렇게 독특한 종결어미에 의하여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문장이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발견된다.

(2) ㄱ. 爾時十/ᄒᆡ 文殊師利菩薩ㄱ/ㄴ 智首菩薩ㄴ/을 告ᄂᆞᆞ/ᄒᆞ아 言ᄒᆞ尸/ᄉᆞᆷ 善ᄉᆞㄱ[哉]ㅕ/견뎌 佛子ㅣ/여 (화엄 14:2,10-12)

ㄴ. (賢首菩薩ㄱ/ㄴ 偈ㄴ/을 以ᄂᆞᆞ/아 答ᄂᆞᆞ/ᄒᆞ아 曰ᄒᆞ尸/ᄉᆞᆷ) 善ᄒᆞ口ㄱ[哉]ㅕ/시곤뎌 仁者ㅣ/여 諦ㅣ/이 聽ᄒᆞᄆᆞᄒᆞ/시옴 應ㅌᄂᆞᆨㅣ/ㅅᄒᆞ겨다 (화엄 14:9,2)

ㄷ. 時十/ᄒᆡ 波斯匿王ㄱ/은 言ㄷᄂᆞᆫ/ᄉᆞᆷ 善ㄷᄅᆞㄱㅕ/시온뎌 大事ㅌ/ㅅ 因緣ᄭ/로 [故ㄴ]ᄂᆞᆫ口ㅏㄱㅣㄱㅜ ᄂᆞᆞ/(로?)ᄒᆞ시고눈인뎌 ᄒᆞ아 (구인상:3,20)

(2′) ㄱ. 됴ᄒᆞᆯ쎠 世尊하 져기 니르쇼셔 (석상 20:5ㄴ)

ㄴ. 됴ᄒᆞ실쎠 世尊하 願ᄒᆞᆫ돈 져기 사겨 니르쇼셔 (월석 18:23ㄱ)

ㄷ. 大王이 과ᄒᆞ샤 讚嘆ᄒᆞ샤ᄃᆡ 됴ᄒᆞᆯ쎠 됴ᄒᆞᆯ쎠 大德大仙이 福德이 노ᄑᆞ샤 이러ᄒᆞ샷다 ᄒᆞ야시ᄂᆞᆯ (석상 11:27ㄱ)

(2)는 공통적으로 화자가 청자의 말을 듣고 훌륭하다고 찬탄하는 장면에 사용된 문장들이다. (2ㄱ)은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의 물음을 듣고 그 질문의 내용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편안하게 해 주는 훌륭한 물음임을 칭찬하는 장면, (2ㄴ)은 문수보살이 수행의 공덕에 대하여 묻자 현수보살이 그러한 질문을 하는 문수보살이 훌륭하다고 찬탄하는 장면, (2ㄷ)은 부처가 앞으로 설법할 내용을 말하자 이를 들은 波斯匿王이 그 설법 내용이 훌륭한 것임을 찬탄하는 장면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문장에서 표현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감정, 정서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자의 정감성이 표시되는 것

이 일반적이었음을 (2′)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2′ㄷ)은 화자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과ᄒᆞ샤 讚嘆ᄒᆞ샤더'가 표면에 나타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2)와 동일한 문맥을 가진 예문이다. (2′)과 유사한 장면인 (2)에서 '善ᄂᆞᆨ[哉]ㅕ', '善ㅱㅁᄀ[哉]ㅕ', ' 善ㄴᄅᆞᄀㅕ' 등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통해 적어도 여기에는 15세기의 '-ㄹ쎠'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요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2ㄷ)에서 '善ㄴᄅᆞᄀㅕ 大事ᄅᆞ 因緣ᄴᆞ [故ㅅ]ᄉᆞᄂᆞᄆᆞᄐᆞᄀᆞᄖᆞᄀᆞ' 전체는 상위의 동사 '言ㄴᆞᆫ'의 보문으로서 '善ㄴᄅᆞᄀㅕ'와 '大事ᄅᆞ 因緣ᄴᆞ [故ㅅ]ᄉᆞᄂᆞᄆᆞᄐᆞᄀᆞᄖᆞᄀᆞ'에서 화자의 태도나 그 정감성 존재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곧 "善ㄴᄅᆞᄀㅕ'가 화자의 정감성이 포함된 표현이라면 '大事ᄅᆞ 因緣ᄴᆞ [故ㅅ]ᄉᆞᄂᆞᄆᆞᄐᆞᄀᆞᄖᆞᄀᆞ' 또한 화자의 정감성이 포함된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2′)에서 상위문의 '과ᄒᆞ야 讚嘆ᄒᆞ샤더'에 걸리는 하위문 '됴ᄒᆞᆯ쎠 됴ᄒᆞᆯ쎠'와 '大德大仙이 福德이 노ᄑᆞ샤 이러ᄒᆞ샷다'에 모두 화자의 정감성이 표시되어 있음에서도 잘 알 수 있다.[6] 따라서 '大事ᄅᆞ 因緣ᄴᆞ [故ㅅ]ᄉᆞᄂᆞᄆᆞᄐᆞᄀᆞᄖᆞᄀᆞ'에서도 '-ㄹ쎠'와 같이 화자의 정감성을 표시하는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

그런데 '善ㄴᄅᆞᄀㅕ', '因緣ᄴᆞ [故ㅅ]ᄉᆞᄂᆞᄆᆞᄐᆞᄀᆞᄖᆞᄀᆞ'에 포함된 구결자 'ᄅᆞ(오)', 'ᄀ(ㄴ)', 'ㅕ(뎌)', 'ㄴᆞ(시)', 'ᄆᆞ(고)', 'ᄐᆞ(누)', 'ᄖᆞ(이)', 'ᄀᆞ(뎌/

6) '됴ᄒᆞᆯ쎠 됴ᄒᆞᆯ쎠'에서는 종결어미에 의해 화자의 정감성이 표시된 데 비해 '大德大仙이 福德이 노ᄑᆞ샤 이러ᄒᆞ샷다'에서는 선어말어미 '-옷-'에 의해 화자의 정감성이 표시되었다.

7)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ᄀᆞᄀᆞ'가 감탄법 어미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ㄷ)과 같은 구조의 문장에서 '善ㄴᄅᆞᄀㅕ'나 뒤의 '大事ᄅᆞ 因緣ᄴᆞ [故ㅅ]ᄉᆞᄂᆞᄆᆞᄐᆞᄀᆞᄖᆞᄀᆞ'의 종결어미 자리에 항상 화자의 정감성을 표시하는 종결어미가 오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5세기에는 이러한 문맥에서 뒤의 '大事ᄅᆞ 因緣ᄴᆞ [故ㅅ]ᄉᆞᄂᆞᄆᆞᄐᆞᄀᆞᄖᆞᄀᆞ'에는 물론 앞의 '善ㄴᄅᆞᄀㅕ'의 종결어미 자리에 평서법 종결어미가 통합하는 일이 있었다.

명)' 등에서 후기 중세국어의 '-ㄹ쎠'가 표시하는 화자의 정감성, 또는 그와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요소는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ㄹ쎠'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가 구결토 '-ㄱㅕ, -ㄱㅜ'(-ㄴ뎌)라고 파악한다.[8] 문법사적 연속성을 고려할 때 '-ㄱㅕ, -ㄱㅜ'는 외형상 15세기의 감탄법 종결어미들과 매우 흡사하므로 이렇게 분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후기 중세국어 단계인 15·16세기에는 물론 이보다 전 시기인 전기 중세국어 단계에도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감탄문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감탄문을 이루는 감탄법 종결어미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보았다. 이제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감탄법 종결어미는 과연 어떻게 분석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전기 중세국어를 반영하는 석독구결에 나타난 감탄형을, 동사 어간은 'ᄒᆞ-', 형용사 어간

8) '-ㄱㅕ, -ㄱㅜ'가 사용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 등의 정감성이 표시되었음이 틀림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ㄱㅕ'와 '-ㄱㅜ'를 동일 형태소의 이표기로 볼 것인지 별개의 형태소 표기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ㄱㅕ'의 'ㅕ'의 독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ㄱㅕ', '-ㄴㅕ'에 포함된 구결자 'ㅕ'의 독음에 대하여 심재기(1975)에서는 '녀'로, 남풍현·심재기1976)에서는 '셔'로 읽은 바 있다. 그러나 김영만(1986)에서 'ㅕ'의 원자를 '彼'로 추정하여 '져, 뎌' 등으로 파악한 이후 이승재(1993ㄴ), 정재영(1995) 등에서는 '뎌'로 읽고 있다. 'ㅕ'의 독음과 관련한 이러한 그동안의 논의는 정재영(1995:248~9)에 잘 정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ㅕ'를 '뎌'로 읽어 '-ㄱㅕ'와 '-ㄱㅜ'는 동일 형태소의 이표기라고 본다. 한편 정재영(1995:248~9)에서는 'ㅕ'를 '셔'로 읽을 수 있다면 15세기의 감탄법 어미 '-ㄹ쎠'와 관련시킬 수 있을 것이나 의존명사 'ᄉᆞ'가 석독구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ㅕ'를 '셔'로 읽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15세기의 '-ㄹ쎠'는 그 형태소 구조상 관형사형 어미 '-ㄹ'과 의존명사 'ᄉᆞ'와 감탄조사 '-여'의 통사적 통합체가 문법화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15세기 이전에 이러한 통합체가 존재했음을 전제하므로 전기 중세국어 단계에서 의존명사 'ᄉᆞ'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

은 '하-', 계사 어간은 '이-'를 대표형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세기에 보이는 감탄법 종결어미 '-ㄹ쎠', '-게라/에라/애라'와 관련된 활용형은 보이지 않는다.

(3) ㄱ. ?ᄒᆞᆫ뎌 ; 한뎌(無ノㄱ丁), 인뎌(故ノンニロトㄱ川ㄱ丁) ; *ᄒᆞ뎌 ; *ᄒᆞ어(허)/*ᄒᆞ여, *하어/*하여, *이어/*이여
ㄴ. ᄒᆞ습안뎌(住ᄉᆞ川白ㄱ丁), 하견뎌(善ナㄱ[哉]ㅓ), 하시곤뎌(善勿ロㄱ[哉]ㅓ), 이고ᄂᆞᆫ뎌(功德川ロヒㄱㅓ)
(3′) ᄒᆞ겨ᄂᆞᆫ디여(ンナトㄱ矢ㅅ), 한디여(如支ンㄱ矢ㅅ) ; *ᄒᆞᆯ디여
(4) ㄱ. 홇뎌(成就ンア丁) ; ?홇뎌 ; ??잃뎌 ; *ᄒᆞ뎌
ㄴ. ᄒᆞ겋뎌(念ンナア丁)
(5) ㄱ. ᄒᆞᆺ뎌(證ンセㅓ), 핫뎌(須セㅓ), ??잇뎌 ; *ᄒᆞ뎌
ㄴ. ᄒᆞ앗뎌(飽滿ᄉᆞ川ㅋセㅓ)

(3ㄱ), (4ㄱ), (5ㄱ) 등에서 보듯이 '-ㄴ뎌', '-ㅭ뎌', '-ㅅ뎌'에서 'ㄴ', 'ㅭ', 'ㅅ'이 빠진 '*ᄒᆞ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ㄴ뎌'나 '-ㅭ뎌', '-ㅅ뎌' 전체를 하나의 어미로 분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3ㄱ)은 '-ㄱ丁(ㄴ뎌)'가 모든 용언과 계사 어간에 두루 통합할 수 있었는데, 특히 형용사와 통합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보인 것이고, (4ㄱ)은 '-ア丁(ㅭ뎌)'가 동사와 통합한 경우만 나타남을 보인 것이며, (5ㄱ)은 '-セㅓ(ㅅ뎌)'가 계사 어간과 통합한 예는 보이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9] (3ㄴ), (4ㄴ), (5ㄴ)에서는 이들 어미가 앞에 다양한 선어말어미들을 통합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세 감탄법 어미를 비교해 보면 '-ㄴ', '-ㅭ', '-ㅅ'이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3)을 (3′)과 비교해 보면, '-ㄴ뎌' 등이 'ㄴ

9) 이러한 분포상의 제약이 이들 감탄법 어미의 의미 특성과 관련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아직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분포상의 특성이 자료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은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ᄃ#이+어/여'나 'ㄴ#ᄃ+이여/여'로 더 분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전자는 명사구에 계사의 활용형이 통합한 구성으로 분석하는 것인데, (3ㄱ)에서 보듯이 용언 어간에 직접 '*-어' 또는 '*-여'가 통합한 종결형이 발견되지 않아 어미 '*-어'나 '*-여'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석 가능성은 봉쇄된다. 후자는 명사구에 조사 '-이여'가 통합한 구성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이렇게 더 분석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석독구결에서 조사 '-여/이여'는, 명사는 물론 용언 어간에 명사적 용법의 '-ㄱ(ㄴ)', '-尸(ㅠ)'이 통합한 명사형, 'ᄂᆞᆫㄱㅅᄆᆞᆺ(ᄒᆞᆫᄃᆞ로여)'와 같이 의존명사 'ᄃᆞ'와 조사 '-로'의 통합체 'ㅅᄆᆞᆺ(ᄃᆞ로)' 등에도 통합하는바, 이들과 같이 '-ㄱ矢ㆍ(ㄴ디여)'를 명사구 구성에 조사 '-이여' 또는 '-여'가 통합한 것으로 분석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과 (3′)이 분명히 동일한 형태론적 구성의 이표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의 '-ㄱ矢ㆍ(ㄴ디여)'와 같이 통합 요소를 모두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오히려 (3)의 '-ㄱ ㅓ/ㄱ丁(ㄴ뎌)'와 같이 표기한 일이 더 많다는 것은 '-ㄱ ㅓ/ㄱ丁'를 이미 하나의 단위로 인식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의 '-ㄴ뎌, -ㅠ뎌, -ㅅ뎌'를 하나의 감탄법 종결어미로 파악한다. 다만 석독구결 단계에서 이들 감탄법 어미는 완전히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통사적 구성에서 하나의 어미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ㄱ丁/-ㄱ ㅓ(ㄴ뎌)'의 기원적인 모습을 '-ㄱ矢ㆍ/-ㄱ矢ㅗ(ㄴ디여)'라는 통합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 비해, 또 다른 감탄법 어미 '-尸丁(ㅠ뎌)', '-ㄴ ㅓ(ㅅ뎌)의 기원적인 모습으로 기대되는 '*-尸矢ㆍ/*-尸矢ㅗ(*읊디여)', '*-ㄴ矢ㆍ/*-ㄴ矢ㅗ(*ㅅ디여)'는 문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尸丁(ㅠ뎌)', '-ㄴ ㅓ(ㅅ뎌)'의 형태소 구조가 '-ㄱ丁(ㄴ뎌)'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尸丁(ㅠ뎌)', '-ㄴ ㅓ(ㅅ뎌)는 각각 '-*尸矢ㆍ/-*尸矢ㅗ(*ㅠ디여)', '*-ㄴ矢ㆍ/*-ㄴ矢ㅗ(*ㅅ디여)'와 같은 통합체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3. 통사·의미적 특성

우선 앞의 (2)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석독구결 자료에서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시하는 전형적인 상황에서는 감탄법 어미로 '-ㄱㅕ(ㄴ뎌)'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다음 (6)과 같은 경우는 '-ㄱㅕ'를 감탄법 어미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 준다.

(6) 何ㅌㅣ/ㅅ여 況ㅿ/며 量 無ㅿ/며 邊尸/ㅍ 無 劫ㅋ十/아히 具ㅎ/오 地度ㄴ/ᄅ 修ㅊㅌㅊ/ㅅㅊ 諸ㄱ/ㄴ 功德ㅣㅁㅌㄱㅕ/이고ᄃᆞ뎌 (화엄 14:9,6)

(6′) ㄱ. 何以故ㅗ ㅅ白ノ王尸入ㄱ/여 ᄒᆞ숩오ᄅᆞᆷᄃᆞ 說法ㅊ/ㅅ [之]處ㅣ/이 卽ノ/호 是ㄱ/ㄴ 其塔ㅣㄷㅁㄱ入ㅠㅗ/이시곤ᄃᆞ로여 若 善男子ㅗ/여 善女人ㅗ ノ尸ㄱ/여 홇은 當 諸香ㅗ/여 花繒ㅗ/여 綵ㅗ/여 幡ㅗ/여 蓋ㅗ ノ尸乙/여 홇ᄋᆞᆯ 以ㅋ/사 是 說法處乙/ᄅᆞᆯ 供養ノㅎ/홈 [應]ㅊㅅㅁㅣ/ㅅᄒᆞ고다 (금광 3:15,11-13)

ㄴ. 云何ㅊㅅㄱ乙/ㅅᄒᆞᆫᄋᆞᆯ 一切施ㅣ ノᄉᆞㅁ [爲]ㅅナ禾尸入ㄱ/여 호리고 ᄒᆞ겨ᄅᆞᆷᄃᆞ (화소35:12,5-6)

(6)은 '-ㄱㅕ'로 종결된 문장인데, 이때의 '-ㄱㅕ'가 의문사 '何ㅌㅣ(엇뎌)'와 호응하는 의문법 어미로 사용된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실제로 정재영(1995)에서 이를 의문문으로 보아 이때의 '-ㄱㅕ'를 의문법 어미로 처리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2)에서 확인했듯이 석독구결 자료에서 '-ㄱㅕ'는 그 용례가 매우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전형적인 감탄법 종결어미로 사용되었고 감탄법 어미 외의 요소로 해석되는 경우는 (6) 한 경우뿐이다. 따라서 (6)이 의문문과 같이 해석되는 데에는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장이 (6′ㄱ)이다. (6′ㄱ)에서 '-ㅗ'는 언뜻 보아 의문의 '何以故'와 호응하는 듯이 보이지만, (6′ㄴ)에서 보듯이 실제

로 '何以故'와 호응하는 요소는 뒤에 생략된 'ㅅᄉㅁ ㅅㅡ'의 'ㅡㅁ'이다(졸고 1997, 1998 참조). 이렇듯이 (6) 뒤에도 'ㅅᄉㅁ ㅅㅡ' 정도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석독구결 자료의 모든 'ㅡㄱㅓ'는 감탄법 종결어미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10]

'ㅡㄱㅓ'와 동일한 형태소의 이표기로 보이는 'ㅡㄱㅜ'에 있어서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7) ㄱ. 佛ㄱ/은 言ㅣㄴㅁ/이싫 善男子ㅇ/아 是 如支ㅅㄱ(~ㅣ)/히ᄒᆞᆫ 汝等 ㅅㄱㄱ/ᄒᆞᆫ오 當ㅅ/기 此 如(ᄉᆞᆼ)ㅅㄴㄱ/(히)ᄒᆞ신 經典乙/을 精勤修行 ㅅㅅㅜ/ᄒᆞ놈 應七ㅅㄱㅗ/ㅅᄒᆞ여 則ㅅ/호 法乙/을 久ㅇ/아 [於]世ㅋ 十/의히 住ᄉᆞㅣ白ㅇㄱㄱㅜ ㅅᄒᆞㅎㄴㄱㅣㅣ ㅅㅂㅅㄴㅣ/히숩안뎌 호리 견이다 ᄒᆞᄂᆞ기시다 (금광 3:15,14-16)

ㄴ. 世諦ㄱ/ᄂᆞᆫ 幻化ㅠ/로 起ㅅㅁㄱ/ᄒᆞ곤 譬のㄱ/ᄃᆞᆫ 虛空七/ㅅ 花 如ㅣ ㅅᄉ/다ᄒᆞ며 影ㅅ/여 三ᄉᆞ七/잣 手ㅣ/이 無ㅅㄱㄱㅜ ㅅᄉᆞ/ᄒᆞᆫ뎌 호리 如ㅣㅅᄉ ㅅㄱㅅ/다ᄒᆞ며 ᄒᆞ여 (구인 상:15,7)

(7)은 모두 화법구문으로서, 밑줄친 종결형을 갖는 문장이 상위문 동사 '言ㅎㅁ(*니ᄅᆞ실)', '曰ㅎㅁ(*ᄉᆞᆯᄫᆞ실, *니ᄅᆞ실)' 등의 화법동사, 또는 이러한 동사의 대동사라고 할 수 있는 'ㅅ(ᄒᆞ)-'의 완형 보문으로 나타난 문장이다.[11] 현대국어에서 감탄문이 간접 인용될 경우에는 평서문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감탄을 표시하는 종결어미가 인용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은 이 문장이 직접 인용문일 가능성이 큼을 암시한다. (7ㄱ)은 감탄법 종결어미 'ㅡㄱㅜ'가 동사 어간에 통합된 예로서, "부처께

10) 이와는 달리 (6)의 예를 순수하게 예외적인 경우로 처리하고, 다만 이는 15세기의 의문법 어미 'ㅡㄴ다'에 상응하는 어미의 문법화 초기 단계를 반영한 자료라고 설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1) 15세기의 화법구문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이현희(1994ㄱ:329~66)을 참고할 수 있다.

서는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이 같은(~같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와 같으신 경전을 정근 수행함이 마땅한 것이다. 곧 법을 오래도록 세상에서 머무르게 했구나 할 것이다 하신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7ㄴ)은 '-ㄱㄱ'가 형용사 어간에 통합한 예로서 "世諦는 幻化로부터 일어나거늘 비유한다면 虛空의 꽃과 같으며 그림자며 셋째 손이 없구나 하는 것과 같으며 한 것이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7)의 '-ㄱㄱ'는 모두 화자의 정감성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7)의 '-ㄱㄱ'가 반드시 감탄법 요소로만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데에 있다. 오히려 현대국어적인 직관으로는 이를 평서법적인 요소로 해석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간혹 '-ㄱㄱ(ㄴ더)', '-ᄑᄀ(ㅱ더)'를 감탄법 종결어미로 파악하지 않고 피인용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평서법 어미로 파악하기도 하는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ㄱㄱ', '-ᄑᄀ'를 일종의 평서법 어미로 처리했을 경우에 이들 형태소는 문법사적으로 매우 기묘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국어 문법사의 어느 단계에서도 평서법 어미 가운데 '-ㄴ더'와 외형상 관련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감탄법과 평서법이 그렇게 다른 성격의 문장 종결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감탄법은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서술'하는 문장 종결법으로서, 이렇게 문장을 종결해 주는 문법 요소가 감탄법 종결어미이다. 따라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진술 태도나 목적에서 볼 때 감탄법은 무엇인가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설명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감탄법은 그 표현 대상이 화자의 감정 또는 정서인 데 비해 설명법은 명제(평서법), 이행 의지(약속법), 소망(소망법), 염려(경계법) 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12] 실제로 감탄법과 설명법이 성격상 매우 가까운 문장 종결법이기

12) 문장 종결법 가운데 화자의 진술 목적 또는 태도가 "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는 설명법(평서법, 약속법, 소망법, 경계법)과 감탄법이 있다. 문장

때문에 한문 등의 외국어를 국어로 이해할 때 동일한 원문이더라도 언해자가 그 원문을 화자의 주관적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각각 감탄문과 평서문으로 달리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8) 師ㅣ 니ᄅᆞ샤ᄃᆡ 도라가미 하 ᄲᆞᄅᆞ다 (師曰ᄒᆞ샤ᄃᆡ 返太速乎ㄴ뎌)
(육조 중:101ㄴ)
(8′) ㄱ. 住在身內ㅅ ノ ㄱ 矣 無有是處ン ㄱ 月ㅗ (남풍현본 능엄경 1:7ㄴ)
ㄴ. 住在身內ㅅ ノ 乙ㅗ 無有是處ン ㄱ ホㅗ (남권희본 능엄경 1:11ㄴ)
ㄷ. 住在身內ㅅ、 ノ 乙ㅗ 無有是處ン ㄱ 月ㅗ (송성문본 능엄경 1:21ㄱ)
ㄹ. 몸 안해 住ᄒᆞ야 잇다 호미 이런 고디 업스니라 (능엄 1:52ㄱ)

(8)에서 구결문에서는 감탄법을 표시하는 '-ㄴ뎌'로 나타난 문장이 언해문에서는 평서문으로 나타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구결을 단 사람이 '師曰返太速乎'라는 한문의 '返太速乎'에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포함되었다고 파악한 반면 언해자는 이 부분이 단순한 사실의 '서술'일 뿐 화자의 감정이 표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감탄문과 설명문이 화자의 감정 '서술' 유무만을 제외하면 문장의 대의를 크게 해치지 않는,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진 문장 종결법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8′)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다. 전기 중세국어를 반영하는 (8′ㄱ, ㄴ), 그리고 후기 중세국어 초기의 (8′ㄷ)에서는 감탄과 관련된 구결토 '-ㄱ 月ㅗ/ㄱ ホㅗ(ㄴᄃᆞ여)'로 나타난 문장이, (8′ㄹ)의 언해문에서는 평서문으로 나타난다. 이 또한 (8)에서와 같은 이유로 나타난 현상이다.[13] 이렇듯이 감탄법과 설명법은 성격상

종결법과 종결어미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는 졸고(1998)의 2장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13) (8), (8′)은 정재영(1996)에서 가져온 예인데, 정재영(1996)에서는 구결문이

매우 가까운 문장 종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14] 이러한 이유로 15세기의 감탄법 종결어미 '-게라/에라/애라'가 통합한 감탄문의 경우에는 감탄법적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는 물론 평서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졸고(1998:194~7) 참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우리는 (7)의 '-ㄱㅜ'를 감탄법 종결어미로 파악한다.

앞서 우리는 '-ㄱㅕ'와 '-ㄱㅜ'를 한 형태소의 이표기로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각각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들 사이에서 미묘한 의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7)에서 보듯이 감탄법 종결어미 '-ㄱㅜ'에서는 화자의 정감성은 오히려 약하고 화자 자신이 말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실한 것으로 믿고 있다는 확정적 양태성이 강하게 파악된다. 특히 (7ㄱ)과 같이 선어말어미 '-ᄋᆞ(아)-'에 의하여 이러한 확정적 양태성이 더 강조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저 앞 (2)의 '-ㄱㅕ'는 언급 대상에 대한 확정적 양태성은 물론 어떠한 상황을 경험한 직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처음 앎'의 의미가 발견되기도 한다. 곧 (2)의 '-ㄱㅕ'에서는 질문이나 설법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고서야 '善-'하다는 사실을 화자가 알게 되었

나 음독구결 자료의 감탄형이 언해문에서 평서형으로 언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음독구결 자료의 감탄형 '-ㄱ月ㅗ/ㄱ ホㅗ(ㄴ두여)'가 언해문의 당위성 구문으로도 언해된다는 정재영(1996:291~2)의 설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언해문의 '아롫 디니라'로 언해된 부분은, 음독구결 자료에서 구결토 '-ㄱ月ㅗ/ㄱ ホㅗ/ㄱ入ㅗ(ㄴ두여)'가 달린 부분이 아니라 제시된 예문의 앞에 나타나는 '則知可ㅅ, 則知ノ矛ㅅ', '應知ノ矛ㅅ' 등의 명령형이다. 중세국어에서 '-라' 등의 명령법은 물론 '-옳 디니라' 등의 당위적 표현도 "명령"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다[졸고(1998)의 4.1.2.3 참고].

14) 전기 중세국어의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조사 '-ㅣ'에 대하여 감탄의 의미 외에 단순 서술의 의미를 가진다고도 파악되어 왔는데, 이는 바로 감탄법과 설명법의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대시켜 보면 국어의 평서법과 감탄법이 기원적으로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었던 문장 종결법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차이가 '-ㄱㅓ'와 '-ㄱㅜ'를 별개의 형태소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근거가 되기에는 미흡하다. 오히려 '-*ㄴ뎌'라는 전기 중세국어의 감탄법 종결어미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야 할 듯하다. 15세기의 '-ㄴ뎌'에서도 "화자의 확정성"의 의미는 물론 "정감성", "처음 앎" 등의 의미가 모두 발견되기 때문이다(졸고 1998:73~5).

석독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또 다른 감탄법 종결어미 '-尸丁(ᄠᅥ뎌)'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9) ㄱ. 謂ノ令/호리 非矣ㅣㅣ/디이다 二諦ㅣ/이 一ㅣㅣ ㄴ尸丁/이다 홇뎌 二非矣ㄱㅣ尸のㄱ/던잃든 何ヒミ/ㅅ여 得ラ☆/음 可ヒンチ尸ロ ノ手ㄱのᄊミ/ㅅ호릻고 호린ᄃ로여 (구인 상:15,5)

ㄴ. 時十/히 或カ/도 有ナㅣ/겨다 人ㅣ/이 來ンミホ/ᄒ아곰 是ㅣ/이 言乙/을 作ンナ尸丁/ᄒ겷뎌 汝ㄱ/는 今ンㄱ/ᄒ 有ㅓ又ㄱ/두는 所乙/ᄇᆞᆯ 悉ミ/다 當ハ/기 我ラ十/의히 與ンロハ☆ヵ立 ンムㄱㅣ十/ᄒ고기이시셔 ᄒ건다히 (화소 35:10,7-8)

ㄷ. 時十/히 或カ/도 有ナㅣ/겨다 人ㅣ/이 來ンミホ/ᄒ아곰 王ラ十/의히 白ミ/아 言白ナ尸丁/숣겷뎌 (화소 35:10,17)

(9)는 감탄법 종결어미 '-尸丁'가 용언 어간에 직접 통합하여 종결된 직접화법적인 문장이 화법동사의 내포문으로 나타난 문장들이다(후술 참조). 여기에서 '-尸丁'가 모두 동사 어간에만 통합되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되는데, 바로 이 점이 석독구결 자료의 다른 감탄법 종결어미와 구별되는 '-尸丁'의 특성이다. 이러한 분포상의 특성은, 15세기의 감탄법 어미 '-ㄴ뎌'가 주로 동사 어간과 통합하고 '-ㄹ뎌'는 주로 형용사 어간과 통합한다는 사실(졸고 1998 참조)과 비교되는바, 분포상 석독구결의 '-尸丁'는 15세기의 '-ㄹ쎠'보다 '-ㄴ뎌'에 더 가깝다.

(9ㄱ)은 화법동사의 대동사라고 할 수 있는 'ンー'에 '-尸丁'가 통합되

어 있는 예인데, 이에 대해서도 "이체(二諦)가 하나라고 할 것인가?" 정도의 의문문적인 해석이 가능해 보여 '-ᄑᆞᆫ'를 감탄법 어미로 처리할 수 있을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문장 구조와 문맥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해석되기는 어렵다. '二諦ㅣ 一ㅣㅣ ᄂᆞᆫᄑᆞᆫ'의 'ᄂᆞᆫ'는 이 앞의 '謂ᄂᆞᆫ 非矣ㅣㅣ'에 있는 화법동사 '謂ᄂᆞᆫ'의 대동사로서 '二諦ㅣ 一ㅣㅣ'는 이 동사의 보문이다.[15] 결국 이 전체는 "말할 바가 아니다. 二諦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여."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때의 '-ᄑᆞᆫ'는 관형사형 어미 '-ᄑᆞ(ㅭ)'과 의존명사 'ᄒᆞ(ᄃᆞ)', 그리고 감탄조사 '-ᄉᆞ(여)'가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16] 이는 석독구결 자료의 '-ᄑᆞᆫ'의 기원을 잘 시사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코 이때의 '-ᄑᆞᆫ'를 의문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9ㄴ, ㄷ)은 '-ᄑᆞᆫ'가 모문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동사 어간과 '-ᄑᆞᆫ' 사이에 다른 선어말어미를 통합시킬 수도 있었음을 보여 준다. 특히 (9ㄷ)에서도 이른바 '구결문 분리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ᄑᆞᆫ'가 나타난 문장에서도 전형적인 감탄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ᄑᆞᆫ'를 감탄법 종결어미로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ᄑᆞᆫ'는 '-ㄱᅀᆞ/ㄱᆫ'와 형태소 구조상 서로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통합형 형태소의 경우 형태소의 선행 구성요소(여기에서는 '-ᄑᆞ'과 '-ㄱ')의 차이로 서로 다른 문법 요소, 특히 서로 다른 문장 종결 요소가 되는 현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ㄱᅀᆞ/ㄱᆫ'를 감탄법 종결

15) (9ㄱ)은 석독구결이 원래의 한문을 어느 정도 국어화하여 이해하기 위한 것이긴 했지만, 석독구결을 붙여 읽은 석독 구결문이 완전히 국어화한 문장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곧 완전한 국어 문장이었다면 어순이 바뀌어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되었을 문장인데, 석독 구결문에서는 주어부와 서술부가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졸고(1998:45)에서는 '구결문 분리 현상'이라 부른 바 있다.

16) 논문의 초고를 읽고 이 사실을 지적해 준 박진호 선생께 감사드린다.

어미로 파악한 이상 '-尸丁'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요소로 파악한다.[17] 다만 (9)의 '-尸丁'에서는 앞의 '-ㄱㅓ'에서 발견되던 '처음 앎'의 의미는 발견되지 않는다. (9)의 문장 내용을 어떤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파악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또한 '-尸丁'가 통합한 대부분의 환경이 주로 화자의 가정(假定) 상황이라는 점도 특징적인 사실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안병희(1987)에 의해서 소개된 또 다른 석독구결 자료인 均如의 방언본 저술에 나타난 다음의 예에서도 '-尸丁'를 발견할 수 있다.

(10) (答彼經文義 欲現隨機設教不同 非是欲明佛性多種也 此義中若破經文者) 或 有如 佛性隱 闡提人隱 有亘亦 善根人 無如好尸丁 或 有如 佛性隱 善根人隱 有亘亦 闡提人 無如好尸丁 等云也 (석교분기 3:29)

(10)의 '-尸丁'도 석독구결 자료의 것과 동일한 감탄법 어미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때의 '-尸丁'에 대하여 의문법 어미로 파악한 연구도 있으나(정재영 1995), 석독구결 자료의 대부분의 '-尸丁'를 의문법 어미로 볼 수 없듯이 이때의 '-尸丁'도 결코 의문법 어미로 볼 수는 없다. 이는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번거롭지만 (10) 전체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대답하기를 그 경문의 뜻은 기(機)에 따라 설교가 다름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지 불성이 여러 종류임을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뜻으로 경문을 이해한다면,) 혹 있다 불성은. 천제인은 있지만 선근인은 없다 하겠구나. 혹 있다 불성은 선근인은 있지만 천제인은 없다 하겠구나. (하는)

17)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尸丁'를 감탄법 어미로 분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는 앞서 '-ㄱ丁'를 '-ㄱㅓ'와 동일한 감탄법 어미로 분석했을 때 그 타당성을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찾은 문제과 더불어 앞으로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등등을 말함이다." 정도로 해석된다. 만일 문제의 부분을 "혹 있다 불성이라는 것은. 천제인은 있지만 선근인(에게)는 없다고 하겠는가?" 정도의 의문문으로 해석한다면 여기에서 밝히고자 한 내용이, '불성'이 모든 근기의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설명이 되어 버리므로 문맥상 앞의 내용과 초점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 예도 석독구결의 '-尸丁'와 같은 감탄법 종결어미로 파악해야 한다.

석독구결의 감탄법 종결어미 '-尸丁(ᄒᆞ더)'와 관련된 또 하나의 특징적 현상은, 석독구결 이중 부정 표현의 첫째 부정 표현에 바로 이 종결어미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석독구결의 내포문 부정 표현에는 주로 '…ㅅ尸 不ㅅ-'가 사용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석독구결의 이중 부정 표현은 '…ㅅ尸 不ㅅ尸丁 ノ尸 부정어'의 구조를 갖는다.

(11) ㄱ. 不美食し/을 得 當 願 衆生 諸ㄱ/ㄴ 三昧七/ㅅ 味し/ᄅᆞᆯ 獲得ㅅ尸/ᄒᆞᆷ 不ㅅ尸丁 ノ尸/ᄒᆞᆷ더 ᄒᆞᆷ 莫七ヒ亦/ㅅᄂᆞ셔 (화엄 14:7,15)

ㄴ. 見聞ㅅ弓/ᄒᆞ져 聽受ㅅ弓/ᄒᆞ져 若七/ㅅ 供養ㅅ弓 ㅅロヒ火七ハ尸入ㄱ/ᄒᆞ져 ᄒᆞ고ᄂᆞ붓깋ᄃᆞᆫ 皆七/ㅅ 安樂し/을 獲リ/이 令リ尸/잃 不ㅅ尸丁 ノ尸/ᄒᆞᆷ더 ᄒᆞᆷ 靡リヒ ㅅヒ矛ク/잇 ᄒᆞᄂᆞ리며 (화엄 14:14,10)

석독구결 자료에는 외형상 감탄법 어미 '-ㄱ丁/-ㄱ彳'의 기원적인 통합체로 보이는 구결토 '-ㄱ矢ㅅ/-ㄱ矢ㅗ(ㄴ디여)'도 나타난다.

(12) ㄱ. 彼 一ㄱ/은 塵しㅠハ/을룩 內ㅋ七/앗 衆ㄱ/은 多リㄱ/인 刹ㄱ/ㄴ 或カ/도 有ナ丨/겨다 佛矢/디 有ナハあ万ㄱ矢ㅅ/겨기시온디여 或ナ丨/겨다 佛矢/디 無あ万ㄱ矢ㅅ/시온디여 (화엄 14:15,10)

ㄴ. 或ナ丨/겨다 曠野七/ㅅ 熱時七/ㅅ 燄 如支ㅅㄱ矢ㅅ/히ᄒᆞᆫ디여 或ナ丨/겨다 天上ㅋ七/앗 因陀網 如支ㅅㄱ矢ㅅ/히ᄒᆞᆫ디여 (화엄 14:15, 13)

(12)의 서술어에는 모두 '-ㄱ矣ㅣ/-ㄱ矣ㅗ'가 통합되어 있다. (12ㄱ)의 예만을 들어 살펴보자면, 밑줄 친 '有ナハゐゥㄱ矣ㅣ', '無ゐゥㄱ矣ㅣ'는 각각 용언 어간과 선어말어미의 통합체인 '有ナハゐゥ-', '無ゐゥ-'에 '-ㄱ矣ㅣ'가 통합한 것이다. 그런데 (12)에서 보이는 '구결문 분리 현상' 등은 모두 앞의 '-尸丁'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현상이며 그 표현 내용도 대부분 가정상의 것이라는 점에서 앞의 '-尸丁'가 표시하는 의미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감탄법 어미 '-ㄱ丁/-ㄱ亻'의 기원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12)의 문장들은 어떠한 성격의 문장일까? 이는 결국 '-ㄱ矣ㅣ/-ㄱ矣ㅗ'에 대한 형태 분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관형사형 어미 '-ㄱ(ㄴ)'과 의존명사 'の(ᄃᆞ)', 그리고 감탄조사 '-ㅣ/ㅗ[(이)여]'의 통합체로 파악한다.[18] 특히 (12)에서는 '구결문 분리 현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조사 '-ㅣ/ㅗ(여)'가 통합한 경우에 주로 발견되던 사실이므로 (12)의 문장에 조사 '-ㅣ/ㅗ'가 개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때의 '-ㅣ/-ㅗ'는 원래의 호격조사와는 구별되는 감탄조사라고 할 수 있다.[19]

---

18) (12)와 같은 문장을 15세기의 '놀애 브르고 춤 처셔 靈衣를 펴ᄂᆞ니 荒淫ᄒᆞᆯ셔 녯 風俗이여 (두초 13:16ㄱ)', '믌 흐르는 므릐 바ᄅᆞᆯ로 가는 ᄠᅳ디여 萬國의 님금을 奉戴ᄒᆞᄂᆞᆫ ᄆᆞᅀᆞ미로다 (두초 13:22ㄴ)', '셟고 애받븐 ᄠᅳ디여 누를 가ᄌᆞᆯ빙가 (월곡 상:52ㄱ, 기143)' 등의 문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 문장은 일종의 분열문으로서 '風俗이여', 'ᄠᅳ디여', '나리여'는 각각 '荒淫ᄒᆞᆯ셔', '萬國의 님금을 奉戴ᄒᆞᄂᆞᆫ ᄆᆞᅀᆞ미로다', '南樓에 ᄀᆞ장 보ᄂᆞᆫ 처ᅀᅥ미로다'의 주어에 해당하고, '셟고 애받븐 ᄠᅳ디여'는 '가ᄌᆞᆯ빙가'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종의 분열문적인 구성이 '-ㄱ丁/ㄱ亻(ㄴ뎌), -尸丁(ㅭ뎌)', '-ㄱ矣ㅣ/ㄱ矣ㅗ(ㄴ디여)'의 구문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19) 원래 '구결문 분리 현상'을 보이는 '-ㅣ/ㅗ'는 주로 호격조사로 사용된 것들이다. 그러나 (12)와 같은 문장에 나타난 '-ㅣ/ㅗ'는 호격조사가 아니라 감탄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허웅(1975), 이필영(1986), 임홍빈(1984), 이승희(1996:18~20) 등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감탄조사는 기원적으로 호격조사로부터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 둘의 의미 기능상

석독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감탄법 종결어미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ㄱ丁/-ㄱ ㅕ(ㄴ뎌)', '-尸丁(ㅍ뎌)' 이외에도 '-七ㅕ(ㅅ뎌)'가 더 있다. 이 '-七ㅕ'는 우선 동사 어간에 통합하여 문장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앞에 선어말어미가 통합할 수 있었다.

(13) ㄱ. 若七/ㅅ 有ナ ㅣ/겨다 菩薩刂/이 初七ㅎ/ㅅㅁ 發心ン ᄀ/ᄒᆞ아 誓刂分/이며 求ン ᄀ尒/ᄒᆞ아곰 當ハ/기 佛菩提し/를 證ン七ㅕ ンナ千ミ/ᄒᆞ뎌 ᄒᆞ겨리며 (화엄 14:9,4)

ㄴ. 世尊ㄋ/의 無邊身ㄱ/은 一言字ケ刀/마도 說尸/ㅍ 不多ンニロ尸ナ/ᄃᆞᆯᄒᆞ시곰여 一切弟子衆ㄋ十/의희 法雨乙/를 飽滿ᄉ刂ᄀ七ㅕ ンア入ㅉ [故ノ/호] ンニロ尸分/히앗뎌 ᄒᆞᄃᆞ로 ᄒᆞ시곰며 (금광 3:13,11)

ㄷ. 何(等ンㄱし/ᄒᆞᆯ [爲]五) ... 二者 (生死 二處ᄀ十/아히) 解脫ᄉ刂七ㅕ/헛뎌 不著ン分/ᄒᆞ며 (금광 3:3,18-19)

ㄹ. 我千/우 等ンㄱㄱ/ᄒᆞᆫ 爲ノ/오 救護ン弓/ᄒᆞ져 利益ン弓 ノ尸入乙/ᄒᆞ져 ᄒᆞᆷᄃᆞᆯ 作ン ᄀ/ᄒᆞ아 一切障礙乙/ᄅᆞᆯ 消除ᄉ刂分/히며 其 須七ㅕ ノ尸/ㅅ뎌 ᄒᆞᆷ 所乙/ᄅᆞᆯ 隨ノ/오 意乙/를 如ハ/기 供給ン ᄀ尒/ᄒᆞ아곰 悉具足ン[令]刂ㅁ七ノㅎ七ㅣ/ᄒᆞ이릿옶다 (금광 3:15,13-14)

위의 (13ㄱ)은 타동사 어간 '證ン-'에 직접, (13ㄴ)은 선어말어미 '-ᄀ-'를 두고 사동사 어간 '飽滿ᄉ-'와 간접적으로 '-七ㅕ'가 통합한 문장이 상위문 동사 'ン-'에 내포된 후, 전체 문장이 형식명사 '이'의 명사구 보문을 이루는 구성이다. 곧 '-七ㅕ'는 일종의 화법동사에 내포된 하위문에서 타동사 어간에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문장의 구조 측면에서 볼 때, 앞의 (9ㄷ), (12)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구결문 분리 현상이 나타나 있다. 한편 (13ㄷ)은 '-七ㅕ'가 어간에 직접 통합된 채 문장이 종결되어 있어 내포문뿐만 아니라 상위문에서도 '-七ㅕ'가 나타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3ㄹ)은 '-七ㅕ'이 형용사 어간에 통합될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의 '其 須ㄴᅵ ノ尸 所乙 隨ノ 意乙 如ㅅ 供給ㅅᄌᆞᄒᆞ'은 "그 필수적이구나 할 바를 좇아 뜻과 같게 주어서"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ㄴᅵ'는 정감성과 함께 화자의 확정성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4. 감탄법 종결어미의 통시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감탄법 종결어미로 '-ㄱᅡ/ㄱᅵ丁', '-尸丁', '-ㄴᅵᅡ' 등이 존재했으며 특히 '-ㄱᅡ/ㄱᅵ丁'는 그 기원적인 모습을 암시해 주는 '-ㄱᅩᅀᅳ'도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제는 이렇게 확인된 감탄법 종결어미가 석독구결의 전 단계와 다음 단계의 국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며 이들 사이에 통시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ㄱᅡ/ㄱᅵ丁'는 고대국어 단계에서도 발견된다.[20]

(14) ㄱ. 修叱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丁(닷ᄀᆞ시른 ᄇᆞᄅᆞᄇᆞᆺ 내ᄋᆡ 닷ᄀᆞᆫ손뎌) (隨喜功德歌 5행)
ㄴ.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ᄒᆞᄃᆞᆫ 가지라 나고 가논 곧 모ᄃᆞ론뎌) (祭亡妹歌 7-8행)

(14)는 향가의 예로서 이 당시의 감탄법 종결어미로 '-*ㄴ뎌'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21] 다만 석독구결에서는 '-ㄱᅡ/ㄱᅵ丁'의 기원적인 통합체인 '-ㄱᅩᅀᅵ/ㄱᅩᅀᅳ'가 나타나는데 이보다 더 이른 시기의 자료인 향가

20) 본고의 향가 해독은 김완진(1980)의 결과를 따른다.
21) 이들이 감탄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재영(1995), 졸고(1998) 등을 참조하라.

에서는 이러한 기원적 통합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대국어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나타나는 '-ㄷㅕ'는 보이지 않는 대신에 이 어미의 기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叱等邪/叱等耶(ㅅᄃ야)'만이 발견된다. 다음이 그 예이다.[22]

(15) ㄱ. 達阿羅浮去伊叱等邪(ᄃ라라 ᄠ갯ᄃ야) (彗星歌 9행)
ㄴ.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ᄒᆞᆫᄃ사 숨기주쇼셔 ᄂ리ᄂ옷ᄃ야) (禱千手觀音歌 8행)
ㄷ. 吾言頓叱進良只 法雨乙乞白乎叱等耶(나ᄂᆞᆫ ᄇᆞᆺ 나삭 法雨를 비술봇ᄃ야) (請轉法輪歌 3-4행)

향가의 (15)와 같은 문장들은 앞서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어미 '-ㄷㅕ'가 '-*ㅅ'과 '*ᄃ', '-*여'의 통합체가 문법화한 것이리라는 앞서의 추론의 정당성을 더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석독구결의 '-ㄷㅕ'가 이러한 기원적인 통합체에서 문법화하거나 문법화하는 도중에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기원적인 '-*ㅅᄃ야'에 포함된 'ㅅ', 'ᄃ', '여'가 과연 어떠한 요소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단지 형태소 구조상 이들이 '-ㄱㅕ/ㄱㅜ'의 기원형으로서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ㄱᄉᆞ/ㄱᄉᆞㅗ'와 동일한 방식의 구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만은 확인할 수 있다.[23]

---

22) 이들 예문에 대한 감탄문적인 해석은 정재영(1995:257~60)을 참조하라. 졸고(1998)에서도 이 해석을 수용하여 고대국어의 감탄형으로 이들 예문을 제시한 바 있다.

23) 이는 결국 석독구결 자료에서 나타나는 '-ㄷ(ㅅ)'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이승재(1993ㄱ:58)에서는 이때의 '-ㅅ'이 형식명사 앞에 온다는 점을 중시하여 '-ㄴ', '-ㅁ' 등과 동일한 성격의 요소로 파악한 바 있으나 보다 깊이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결학회의 연구 발표시에 지정토론자였던 이승희 선생은 이와 관련하여 'ㅅ'과 'ᄃ'를 선어말어미로, '여'를 어말어미로 볼 가능성을 지적한 바

이렇듯이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종결어미 '-ㄱㅕ/ㄱㅜ', '-ㄴㅕ'는 고대국어 자료에서와 그 분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고대국어로부터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석독구결의 '-ᄆᆞᆫ'는 고대국어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24] 그 기원형으로 추측되는 '-*ᄆᆞᆺᄋᆞ/ᄆᆞᆺㅗ(ㅠ디여)'나 '-*ㅠᄃᆞ야'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이 자료상의 제약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면 석독구결 자료의 '-ᄆᆞᆫ'는 고대국어에서 전기 중세국어 초기 단계 어느 사이에 새로이 형성된 어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로서는 단정을 삼가기로 한다.

한편 석독구결의 다음 단계의 국어인 15세기 국어에서는 감탄법 종결어미로 '-ㄴ뎌', '-ㄹ쎠', '-게라/에라/애라' 등이 분석된다.[25] 분포면에서 '-ㄴ뎌'는 모든 용언과 계사와 통합하는데 특히 동사와 통합한 경우가 많고, '-ㄹ쎠'는 동사와 형용사와만 통합하는데 주로 형용사와 통합하며, '-게라/에라/애라'는 주로 상태성이 강한 동사와 통합한다. '-ㄴ뎌'는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 제약을 가지며 화자의 정감성과 함께 확정성, '처음 앎' 등의 양태적 의미를 표시하기도 한다. 단 '처음 앎'의 양태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볼 때에는, 'ᄃᆞ'는 어떠한 의미·기능을 가진 선어말 어미이며, '-여'는 또 어떠한 성격의 어말어미인지 불분명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원적인 '-*ㅅᄃᆞ야'에 대해서도 석독구결의 '-ㄱㅕ/ㄱㅜ'의 기원형과 동궤의 것으로 설명하고 이때의 'ㅅ'이 과연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밝히는 편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24) 외형상 '-ㄹ뎌'와 유사한 종결요소가 사용된 예가 '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丁(이 짜홀 ᄇᆞ리곡 어드리 가놀뎌) (安民歌 7행)'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정재영(1995:249~5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때의 '-ㄹ뎌'는 '於冬是(어드리)'와 호응하는 의문형일 가능성이 높다.

25) 15세기의 감탄법 종결어미의 분석은 물론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는 졸고(1998:104~6, 184~97)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는다.

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1인칭 주어 제약이 없다. 그리고 이는 상대적으로 통보성이 약한 감탄법 종결어미이다. '-ㄹ쎠'는 화자의 정감성과 '처음 앎'의 양태성을 표시할 뿐 확정성은 표시하지 않는다. '-게라/에라/애라'는 강한 통보성을 가지며 감탄법과 평서법의 중간 정도의 의미를 가진 감탄법 어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살펴본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어미들과 비교해 볼 때, '-ㄱㅕ/ㄱㅜ'는 외형상으로는 물론 분포상 특성이나 그것이 표시하는 의미가 후기 15세기의 '-ㄴ뎌'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후기 중세국어의 '-ㄴ뎌'가 전기 중세국어의 '-ㄱㅕ/ㄱㅜ'와 직접 이어지는 것임을 말해 준다.[26] 반면 전기 중세국어의 '-ᄇᆞᆨ'와 '-ㄴㅕ'의 경우에는 후기 중세국어의 어떠한 감탄법 종결어미들과도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ᄇᆞᆨ'는 후기 중세국어의 '-ㄹ쎠'와 외형상 부분적인 유사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ㄹ쎠'가 '처음 앎'을 표시할 수 있는 데 비해 '-ᄇᆞᆨ'는 그렇지 않아 차이를 보인다. 또한 '-ᄇᆞᆨ'가 거의 평서문에 가깝게 문장을 종결한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후기 중세국어의 '-게라/에라/애라'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형태상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게라/에라/애라'가 지닌 의미의 일면을 '-ㄱㅕ/ㄱㅜ'도 가지고 있어 '-ᄇᆞᆨ'를 '-게라/에라/애라'와 연관시키기는 무리다. '-ㄴㅕ'의 경우도 '-ᄇᆞᆨ'에서와 같은 이유로 '-ㄹ쎠', '-게라/에라/애라' 등과

26) 석독구결보다 늦은 시기의 전기 중세국어를 반영하는 고려시대 음독구결 자료에서는 감탄법 어미가 '-ㄱᄑ(ㄴ뎌)'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또한 이 감탄법 어미의 기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ㄱㅅㅗ/-ㄱㅎㅗ/-ㄱㅂㅗ(ㄴᄃᆞ여)'가 오히려 석독구결 자료에서보다도 더 활발하게 나타나며, 석독구결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ᄇᆞᆨ(ᄠ뎌)'의 기원적인 통합체 '-ㄹㅅㅗ(ㄹᄃᆞ여)'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들은 구결의 보수성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으나 음독구결 자료가 반영하는 전기 중세국어 후기에도 감탄법 어미 '-ㄴ뎌'가 완전히 하나의 어미 형태소로 굳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음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종결어미에 대해서는 자리를 달리하여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관련짓기는 어렵다. 결국 '-ᄑᆞᆮ', '-ᄂᆡ' 등을 후기 중세국어의 '-ㄹ써, -게라/에라/애라' 등과 문법사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후기 중세국어의 '-ㄴ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 중세국어의 '-ㄱᆡ/ㄱᆞᆮ'와 직접 이어짐은 물론, '-ᄑᆞᆮ', '-ᄂᆡ'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두 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기 중세국어의 감탄법 어미들은 모두 후기 중세국어의 '-ㄴ뎌'로 합류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석독구결 자료의 자료상 제약을 논외로 한다면, 결국 후기 중세국어의 '-ㄹ써', '-게라/에라/애라' 등은 석독구결 자료가 반영하고 있는 시기와 후기 중세국어의 사이 어느 시기엔가 새로이 형성된 감탄법 종결어미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국어 종결어미의 문법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어미의 형성 과정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27]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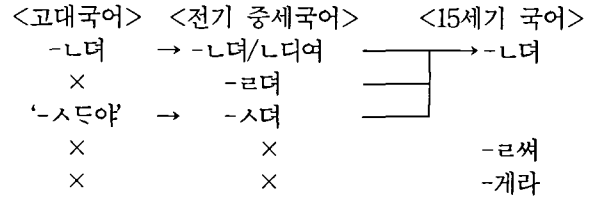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석독구결에 나타난 전기 중세국어의 감탄법 종결어미에는 '-ㄱᆡ', '-ㄱᆞᆮ', '-ᄑᆞᆮ', '-ᄂᆡ'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ㄱᆡ', '-ㄱᆞᆮ'는 동일 형태소의 이표기이다. 또 다른 감탄 종결형으로 '-ㄱᄉᆞ/ㄱᄉᆞㅡ'

27) 감탄법 종결어미의 15세기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졸고(1998)의 5장을 참고할 수 있다. 졸고(1998)에서는 모든 종결어미를 대상으로 개략적이나마 고대국어에서부터 근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종결어미의 통시적 변화를 정리해 본 바 있다.

가 문증되는데 이는 '-ㄱㅓ/ㄱㄷ'의 기원적 모습을 보여 주며, 석독구결 단계에 '-ㄱㅓ/ㄱㄷ'가 완전히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것은 아님을 시사해 준다. 형태소 구조로 볼 때 다른 감탄법 어미들도 이러한 구성이 굳어져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ㄱㅓ/ㄱㄷ'는 모든 용언과 계사와 통합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화자의 정감성을 표시하며, 동시에 화자의 확신성, '처음 앎' 등의 양태적 의미를 표시하기도 한다. 특히 '-ㄱㄷ'는 '-ㄱㅓ'에 비해 전형적인 감탄법 환경에 나타난 경우가 적은 편이다. '-ㄲㄷ'는 화자의 정감성 외에 확정성이나 '처음 앎'의 의미는 표시하지 않는다. '-ㄴㅓ'는 화자의 정감성과 확정성 등을 표시한다.
3. '-ㄱㅓ/ㄱㄷ'는 고대국어 자료인 향가에서도 발견되는데, 그 기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ㄱㅊㅣ/ㄱㅊㅗ'는 향가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ㄴㅓ'의 경우에는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이 구결토만이 발견될 뿐 그 기원형을 반영한 구결토는 발견되지 않는데 비해 향가 자료에서는 항상 그 기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叱等邪/叱等耶(ㅅㄷ야)'만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ㄲㄷ'는 향가 자료에서 그 어미 자체는 물론 기원형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석독구결 자료에서 발견되는 감탄법 종결어미와 15세기의 감탄법 종결어미를 형식, 분포, 의미·기능면에서 비교해 볼 때 '-ㄱㅓ/ㄱㄷ'는 '-ㄴ뎌'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하고, '-ㄲㄷ', '-ㄴㅓ'도 '-ㄴ뎌'로 합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5세기의 감탄법 어미 '-ㄹ쎠', '-게라/에라/애라'는 석독구결 자료가 반영한 시기와 15세기의 사이 어느 때인가 새로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석독구결 자료가 전기 중세국어를, 향가가 고대국어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이상의 결과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개정판, 1998).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개정판, 1997, 집문당).

김두찬(1987), 「고려판 南明集의 구결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김영만(1986), 「舊譯仁王經의 석독 표기 소고(1)」,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 연구』, 서울대출판부.

남기심(1971), 「인용문의 구조와 성격」, 『동방학지』 12(연세대).

남풍현(1990), 「고려말 조선초기의 구결연구」, 『진단학보』 69.

남풍현(1993), 「고려본 瑜伽師地論의 석독구결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연대 국학연구원.

남풍현(1996ㄱ),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ㅣ/ㄹ'에 대한 고찰」, 『구결연구』 1.

남풍현(1996ㄴ),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ㄱ/ㄴ'에 대한 고찰」, 『국어학』 28.

남풍현 · 심재기(1976), 「舊譯仁王經의 구결연구」, 『동양학』 6(단대 동양학연구소).

백두현(1997ㄱ), 「고려 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 2.

백두현(1997ㄴ), 「고려 시대 구결의 문자체계와 통시적 변천」, 『아시아 제민족의 문자』, 태학사.

안병희(1967), 「문법사-한국어 발달사 中」, 『한국문화사대계』 V,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안병희(1987), 「均如의 방언본 저술에 대하여」, 『국어학』 16.

이승재(1993ㄱ), 「여말선초의 구결자료」,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

학과지성사.
이승재(1993ㄴ),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에 대하여」, 『국어학』 23.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국어연구』 139.
이필영(1986), 「호격 및 감탄조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이현희(1986), 「중세국어 내적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 3.
이현희(1988), 「중세국어의 청원구문과 관련된 몇 문제」, 『어학연구』 24-3.
이현희(1994ㄱ),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이현희(1994ㄴ), 「'樂學軌範'의 국어학적 고찰」, 『진단학보』 77.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장경희(1987), 「국어의 완형보절의 해석」, 『국어학』 16.
장윤희(1997), 「석독구결 자료의 명령문 고찰」, 『구결연구』 2.
장윤희(1998),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정재영(1992), 「통합형 어미 '-ㄴ든'과 '-ㄴ뎌'에 대한 고찰」, 『국어학』 22.
정재영(1995), 「전기중세국어의 의문법」, 『국어학』 25.
정재영(1996), 『의존명사 'ᄃᆞ'의 문법화』, 태학사.
한상화(1994), 「기림사본 '楞嚴經'구결의 연구」, 성심여대석사학위논문.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